

조계종 통합 종단 50년 내일을 위한 핵심과제 7

(6)신도교육

조계종은 1962년 통합종단을 출범한 이래 오늘날까지 포교·역경·도제양성을 3대지표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반면 신도 교육은 종단을 이끌어 나가는 구성 인원에 대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은 아니다. 신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다.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불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신도 조직의 결성은 바로 포교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며, 신도조직화에 필요한 각종 신도교육 방법과 교육기관 정비, 의식 통일 등은 포교원이 장,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교 정책이다.”

1996년 불교교양대학 대표자회의 자료집 내용 중 일부다. 신도는 종단을 의회하고 유지하는 기틀이다. 신도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종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분명 체계화 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해방 이전에도 대중 불교 강연 등이 있었지만 단발성에 머물렀고 1970-80년대 불교교양대학들을 신도 스스로 필요해 생겨난 교육 형태들이다. 신도교육의 방향과 체계를 종단적으로 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포교원이 별원된 1994년부터. 1999년 신도법, 포교법이 개정되고 2000년 신도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며 그 기틀을 잡아간다. 여러 성과를 낸 신도교육위원회였지만 2006년 3월 15일 회의를 끝으로 2009년 3월 포교위원회, 신도정책위원회, 포교연구위원회가 발족할 때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수 많은 정책 과제 중 신도 교육은 변방에 있어 왔다. 이런 이유는 어디에 기인할까? 조계종 포교국장 남전 스님은 종단 행정 시스템 구축이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에서 원인을 찾았다. 남전 스님은 “해방 이후 통합종단이 출범하면서도 불교에는 승가든 재가든 교육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며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수행, 포교, 교육, 사회활동 등 현대사회에 필요한 과제들이 1994년 별원 체계로 나뉘면서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 내부적인 면에 기인한다고 봤다. 오래 전부터 신도들의 교육 수요는 많았으나, 사찰들이 이를 안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 공간도 없었으며, 양질의 강사진도 확보되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그간 사찰들의 교육 환경은 매우 낮았다”며 “불교 교리를 삶 속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져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신도기본교육 의무화 등 최근 신도교육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1년 1월 포교원은 신도기본교육 전면 재시행 지침을 일선 사찰에 시달렸다. 지침은 조계종 모든 사찰은 통일된 교본으로 신도기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야 하고 교육체계를 △입교 △신도기본교육 △새교육 및 전문교육 △지도자 교육 등 4단계로 나눴다. 또 교육 이수 단계에 따라 이를 인정하는 신도 품계도 함께 수여키로 했다. 신도 품계는 발심·행도·부동·선해로 구성된다. 올해 3월에는 서울 호암사에서 첫 발심품계법회가 봉행됐다.

남전 스님은 “신도교육 의무화는 이미 법제화 돼 있었지만 관리가 안됐다. 이번 지침은 일선 사찰들이 종단에 교육 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서 의무적으로 신도교육을 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신도품계에 대해서는 “품계는 교육만 받고 활동하지 않는 불자들이 이끌어내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라며 “사찰 역시 교육을 완결시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단에서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 품계제도와 이에 대한 수계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장 반응도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남전 스님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불자들의 재교육 역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사찰 강남 봉은사 교육국장 묵산 스님은 “재적사찰로 있는 신도들이 소속감 증대와 자부심이 고취될 수 있으며, 단계별 교육으로 신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교육이 의무화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사찰 자율적 교육이 사라지고, 신도 등록에만 정책이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니 사찰들이 가지는 특성화된 교육을 할 수 없다. 통일 교육교재보다는 실상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영상자료, 교육 부교재들을 개발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신도등록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가 높았다. 김 교수는 “신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일반 불자들에게 대해 더 문턱을 높인 것이고 불자들은 더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운영의 묘미를 찾아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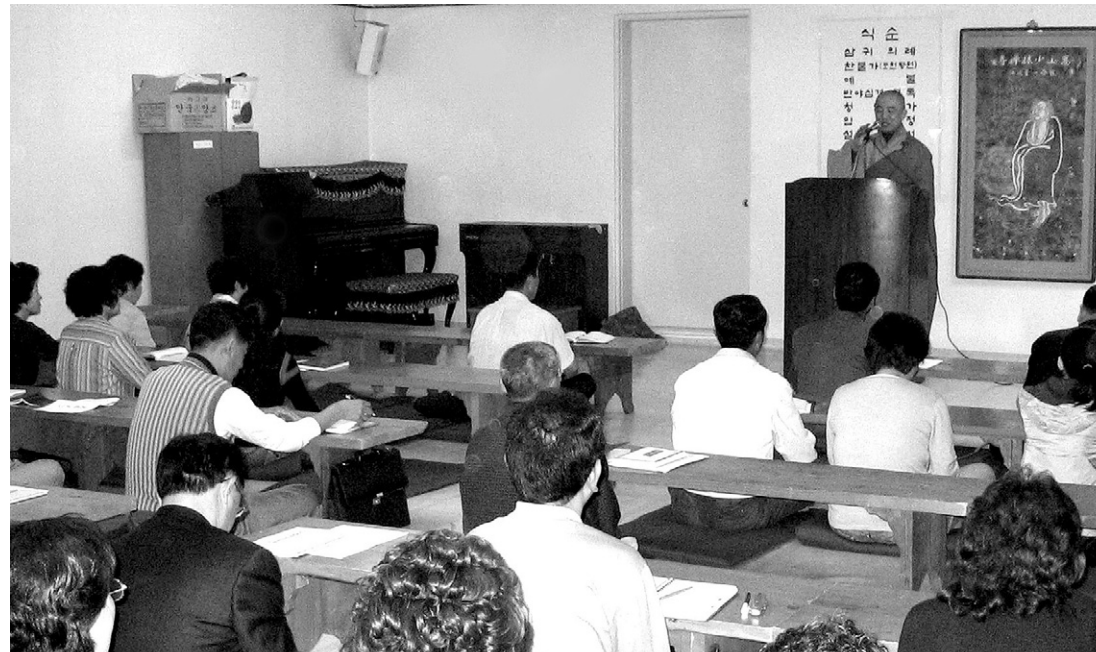
기본교육 의무화는 성과 품계로 종도 개념 구축 사찰 특성화 된 교육 우수강사진 양성 급선무 평생 교육시스템 정립도

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한 바른 신행을 추구할 수 있는 신도 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선결돼야 할까? 김 교수는 우수한 강사진들이 배출돼 일선 현장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님 근교교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교재 개발도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신도들의 다양한 교육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진이 우선된다. 사실 교육의 성패도 강사진에서 갈린다”며 “우수 강사를 키우고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묵산 스님은 세대별 맞춤 교육을 강조했다. 스님은 “어르신 교육과 젊은 세대의 교육은 구분돼야 한다. 젊은 세대는 온오프라인을 전부 활용할 수 있으나, 노인 분들은 철저히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을 사찰에 끌어들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 전문, 재교육 이외에도 사찰을 통해 평생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문제다. 묵산 스님은 “현재 봉은사는 노인대학인 연화대



충북불교대학 수강생들이 스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바른 신행을 알리고 평생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



남전 스님



김응철 교수

학을 통해 만 60세 이상의 노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전학교 등을 통해 전 세대가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교육, 봉사와 신생활을 연계한 불교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전 스님은 교육 체계 활성화에 대해 종단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현재 등록 신도들이 종도로서 조직되는 것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재교육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또한 의무교육 표준화, 강의 계획 동영상 제작 등도 계획 중이며, 각 사찰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일·노덕현 기자

신도교육 분야 주요 연혁

- 1956. 9월 종로 대각사 3주 불교 강좌
- 1972. 6월 서울신도회 불교교양대학 개설
- 1973. 4월 대원불교대학 설립
- 1999. 9. 15 신도법 개정안 통과
- 2000. 3. 18 포교법 개정안 통과
- 2000. 9. 27 신도교육위원회 발족
- 2001. 5. 14 포교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2001. 11. 13 신도기본교육 캠페인 발대식
- 2002. 6. 20 신도전문교육 교본식 봉행
- 2002. 11. 11 제1회 전법인력 양성 교육
- 2003. 3. 12 제2기 신도교육위원회 출범
- 2003. 8. 31 온라인 신도등록 개시
- 2004. 2. 28 교재 <불교의 이해와 신행> 발간
- 2004. 3. 23 교재 <불교의 이해> 발간
- 2005. 1. 10 교재 <불교문화> 발간
- 2005.12.20 제3기 신도교육위원회 출범
- 2009. 4. 1 포교원, 새 신도증 발급
- 2010. 1. 4 포교원, 어린이 청소년 신도증 발급
- 2010. 11. 6 제1회 종단 교구분발사 신도임원 연수
- 2011. 8. 31 신도멤버십센터 개소
- 2010.10.28 제1회 신도품계 품서
- 2011. 1. 5 포교원 신도교육 전면 재시행 지침 하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량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 되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인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량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연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 교육원

-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인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립!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